

도시 및 주거지역의 사회통합형 공간구조 구축

- 사회적 병리현상 억제를 위하여

2013. 4. 17 김 영 욱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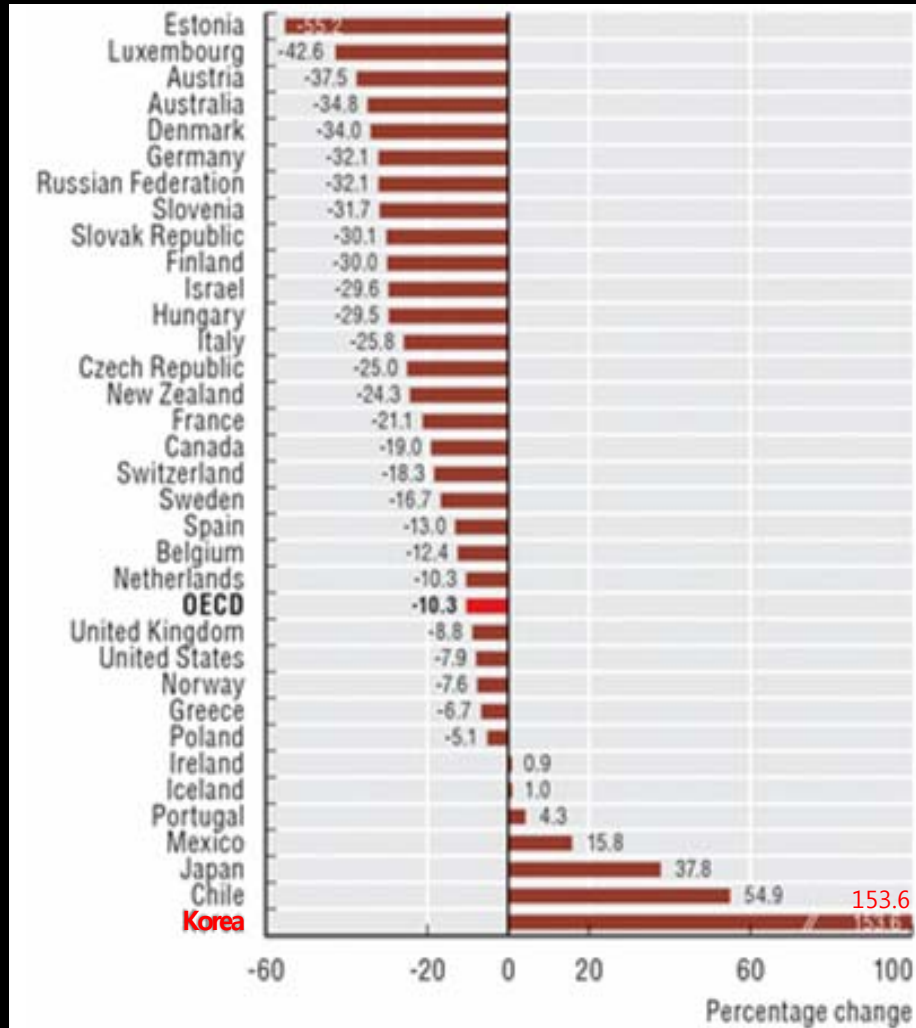
- 1 한국 건축도시공간에서 나타난 사회병리현상
- 2 공간구조에서 바라본 사회갈등 심화
- 3 사회네트워크를 회복하는 공간네트워크
- 4 행복한 사회공동체

한국 건축도시공간에서 나타난 사회병리현상

자살, 범죄, 폭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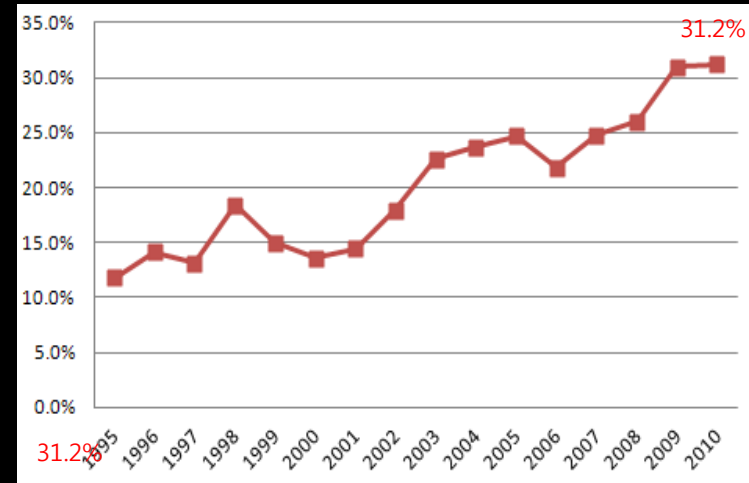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자살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2009 OECD 회원국별 자살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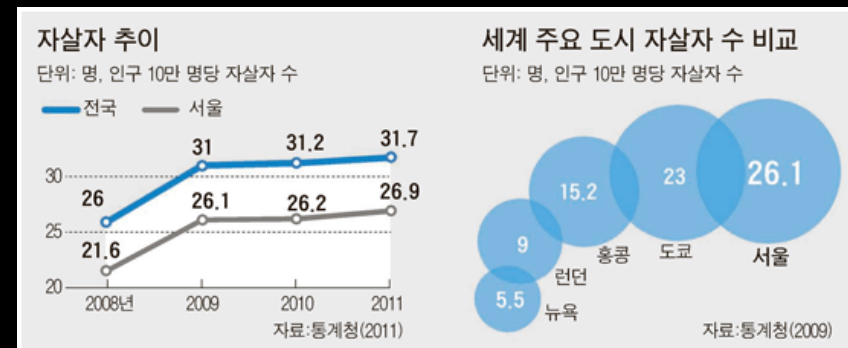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Data 2011: IS-GBE(2011).

[연도별 자살사망률 추세]



자료: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서울자살율 뉴욕의 5배, 세계최고”



대한민국의 자살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자살사건사고

[\[생명을 존중하자, 생명을 살리자\] @ 자살은 사회적 문제](#) 자살사망 급증
내일신문 | 13면 TOP | 2012.06.27 (수) 오후 2:51 <>
우선 자살이라는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 말... 이후 1957년 미국 워싱턴대학의 엘리 로빈스가 1년 동안 134건의 자살 사건 사한 것이...

[대전 여고생 자살, 마지막 엘리베이터 모습까지... 일파만파](#)
동아일보 | 2011.12.21 (수) 오후 3:08 <>
한 네티즌은 “이번 사건이 고위층 자녀의 자살이었다면 단순히 왕따 문제를 사... 고 그냥 넘어갔을까”라고 비판해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이번 건은...

[줄이는 자살...예방전종이 필요한 사회](#) 경남일보 | 2013.02.24 (일) 오후 10:00 <>
비관한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오후 3시 10분께 창원시... 더 큰 문제는 자살률이 전 연령 증가하고 있다는... 파악→맞춤형 자살 예방프로그램 마련→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살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충청투데이 | 2013.01.20 (일) 오후 7:35 <>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20년 간 자살에 관한 연구사례를 통해 유명인의 자살사건이 언론에 박탈감, 40~50대는 직장·업무상 문제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좌절, 노인층은 고립감과 신체적...



마포대교, '이보게 한번만 더' 생각해보게 동상

도시 및 주거지역의 사회통합형 공간구조 구축

사회
사회일반

'자살 많은 동네' 조사해봤더니...

등록 : 2012.09.14 08:01 수정 : 2012.09.14 08:56 + - < > < > < >

f 14 t 35 +1 0 보내기

서울시 2005~2010년 현황 첫 분석
강서·동대문·영등포·용산 '고위험'
다세대·쪽방촌 등 많은 곳서 높아
강남은 유흥업 종사자 주거 때문

최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400여개동의 자살 현황을 파악했더니 동대문구 ㄱ동, 중구 ㄱ2동, 서대문 ㄴ1동, 강서 ㄴ2동, 노원 ㄱ2동 등 강북지역 24개동이 '자살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강남지역의 경우 강남구 ㄴ1동, ㄱ1동 등 2곳만 포함됐다. 서울시의 자살률 현황이 동 단위로 파악되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한 자살 현황은 전국 시·군·구 단위로만 공개되어 한 구당 70만명까지 사는 서울로선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3일 서울시 요청으로 통계청이 내놓은 2005~2010년 서울시내 동별 자살현황을 보면, 해마다 5분위로 동별 자살률을 분류했을 때 동대문구 ㄱ동이 6년 연속 상위 1분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400여개동(행정개편 이전) 가운데 자살률 상위군 20%(80여개동)로 분류된 해수를 따진 결과다.

동대문구가 4개동, 중구·용산구 3개동, 강남·서대문·영등포·종로구 2개동, 강서·강북·구로·관악·광진·노원·마포·성북구가 1개동씩 4년 이상 상위 1분위에 포함돼 '자살 고위험 지역'으로 묶였다. 26개동 가운데 24개동(92%)이 강북권이다.

서울시는 5분위 분류에 따른 '자살 고위험 지역' 대개가 다세대 밀집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쪽방촌 등의 빈민 주거집단이 많은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다세대 밀집 지대로 관악구 ㄱ동, 광진구 ㄱ1동,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가 소재한 강북구 ㄱ2동, 노원구 ㄱ2동, 쪽방촌을 품은 영등포구 ㄱ동, 종로구 ㄱ동 등이 대표적이다.

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의 자살률이 높은 건 사실로 보인다”며 “그밖의 '자살 고위험 지역' 원인과 배경을 동 하나씩 면밀히 분석해 유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동대문구 ㄱ동과 강남구 2개동은 또다른 자살 취약계층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군락을 이룬 데서 배경을 찾고 있다.

동 단위 자살현황에 근거한 자살예방대책은 구별 자살률에 의존했던 방식의 빈틈을 메워줄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로선 2010년 자살률(10만명당 23.6명)이 25개구 가운데 21번째로 낮았으나, 최근 4년 동안 자살률 상위 1분위에 포함된 동은 2곳이나 되어 동별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금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연쇄살인범 그들은
소통이 단절된 순간
야수로 돌변했다

인간이라는 야수
토마스 뮐러 지음

“만일 충분히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 심연이 너를 들여다보지 않을지 주의하라.” (프리드리히 니체)

여기 니체 말을 정면으로 무시해 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범행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며, 용의자 범의자와 인터뷰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바로 프로파일러(Profiler·범죄 심리분석관)다.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강호순 범행을 밝히는 데 이들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에게 프로파일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나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유명 프로파일러인 토마스 뮐러가 쓴 ‘인간이라는 야수’는 이런 프로파일러 세계로 초대하는 책이다. 만일 ‘따분한 심리학이나 범죄 이론만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면 책을 읽기 전에 버려라는 조언부터 하고 싶다. 저자 경험을 읽는 그대로 풀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한 편의 스릴러 소설을 읽는 느낌까지 든다. 뮐러는 2003년 10월 독일 함부르크 폴스비텔 형무소에서 살인범 루츠 라인스트롬과 만났던 이야기를 큰 뼈대로 하면서 범죄심리학 장안자이자 영화 ‘양들의 침묵’에 모티브를 제공한 로버트 레슬러를 만난 이야기, 자신이 겪은 범죄 현장과 사회에 대한 단상 등을 중간 중간에 녹여냈다.

수많은 범행 현장을 누비고 연쇄살인범을 만나면서 뮐러는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었다”고 말한다. 바로 범죄자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를 가진 않았다는 사실이다. 강호순 사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평범, 아니 선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저자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자신을 위장하는 능력은 더 대단했다”고까지 회상한다.

“복잡다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누르스름한 눈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손톱으로 바닥을 벉벉 긁는 것도 아니고, ‘나

세 사람을 죽었다’라는 카인의 징표를 이마에 새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저자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로는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런 이유에서 범죄자 행동을 읽을 수 있는 현장은 프로파일링 업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리고 뮐러는 전 세계 범행 현장을 돌아보면서 “인간에게 잠재해 있던 야수성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서 생기는 것이 범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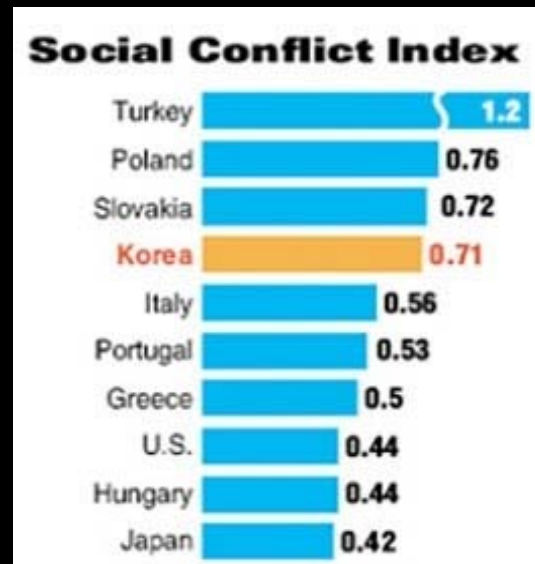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이 ‘결정적으로’ 일그러지는 계기는 어떤 것일까. 저자는 이를 ‘소통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비록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찾는다면 마지막 걸림돌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뮐러는 “주위와 관계가 단절돼 가는 현대사회도 끔찍한 범죄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주변부로 밀려난 무수한 사람들이 폭력적인 환상 속으로 도피하고 소통이 막혀버리는 순간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야기한다.

그는 프로파일러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는 인간이 환상 속에 야수로 변하는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여러 해 동안 해온 이 모든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요.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단 한 건의 강간, 단 한 건의 성추행, 어쩌면 단 한 건의 살인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요. 물론 어떤 일들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을 촉진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넘겨줌으로써 단 한 번이라도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요.”

김태희 옮김, 황소자리 펴냄, 손돌무지

2009년 OECD 가입국가 사회갈등지수



뮐러는 “주위와 관계가 단절돼 가는 현대사회도 끔찍한 범죄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주변부로 밀려난 무수한 사람들이 폭력적인 환상 속으로 도피하고 소통이 막혀버리는 순간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돌변한다는 얘

기다.

사회단절이 부르는 범죄문제, 사회구조가 만든 괴물

수년간 가족-친구-사회단절 적개심이 불특정다수에 폭력

이슈분석-전국 각지서 문지마 칼부림...사회불안 증폭 <중>은둔형 외톨이의 광기
군대 다녀온 후 8년 전부터 혼자 살기 시작
정서적 지원 받지 못한 '사회구조적 괴물'

[3면]의 기사보기

JPG

PDF

신문보기



2012년 08월 27일 (월)

김지혁 기자 kjh@iusm.co.kr

지난 21일 자주 가던 동네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윤모(27)씨는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군대를 다녀 온 8년 전부터 혼자 살았으며, 22살 때 대형마트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3개월씩 일하다 그만두기를 반복했을 뿐, 뚜렷한 직장이 없었다.

더욱이 4년 전부터는 중구 복산동 방 2개짜리 단독주택에

윤씨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가량 주는 20만원의 용돈으로 한 번에 5만원어치 과자와 인스턴트 카레, 라면 등을 사 방에서 30인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씨는 친구도 없었다. 그의 은색 휴대전화에는 가족의 전화번호조차 없었다. 이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용돈을 주러 가면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했다. 무서워 집 앞에 돈과 반찬만 두고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해 온 윤씨가 어느 시점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문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창한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와 단절돼 있어 공격적이고 사회에 적개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이들은 가족과 친구, 사회에서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사회구조가 만든 '괴물'이다”면서 “정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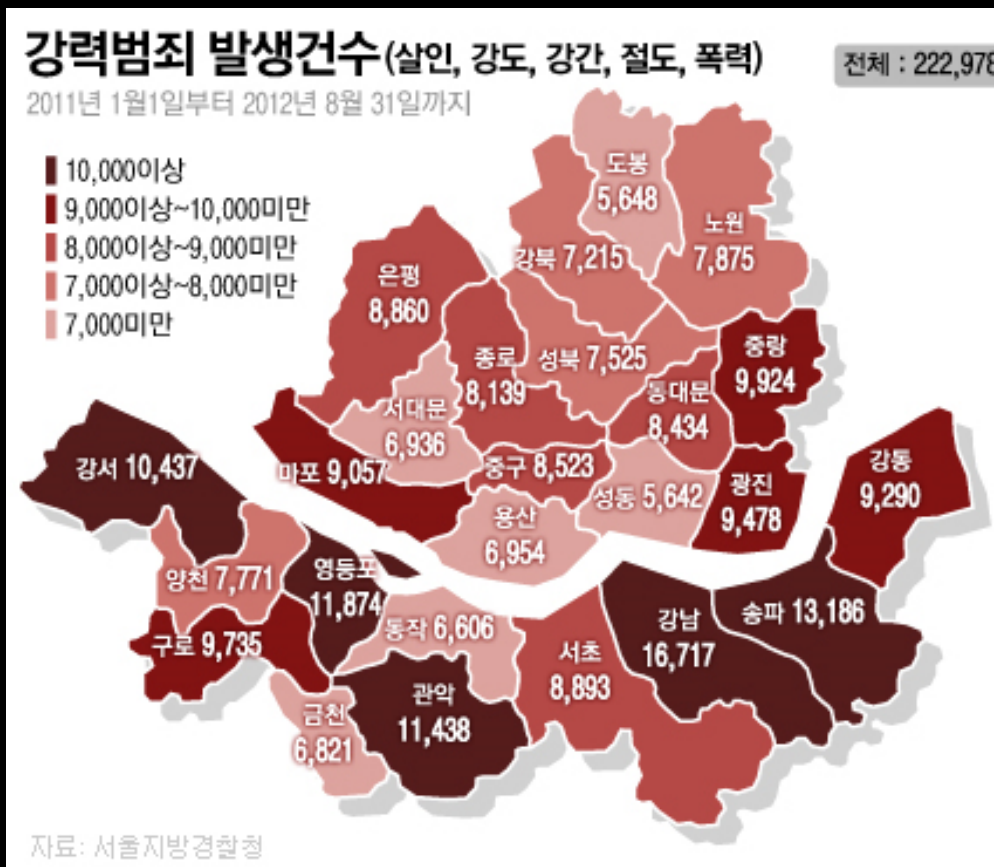
최근 경기 의정부시(8명 부상), 수원시(1명 사망, 4명 부상), 서울 여의도(4명 부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모두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건 발단과 연결고리가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세 사건의 원인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번 폭발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점을 공통분모로 보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 가해지는 전통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일련의 무차별 흉기난동은 미국 등 선진국형 증오범죄라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사회단절이 부르는 범죄문제, 사회구조가 만든 괴물



범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일반주거지역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노후주거단지)

시민의 이용이 적은 공공공간

(인적이 드물고 좁은 복잡한 골목길,
건물사이 이격공간, 유흥시설 밀집지역 등)

공동체 건강성을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절실

오피니언

사설

[사설]늘어나는 '고독사'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입력 : 2019-02-19 22:11:22 | 수정 : 2019-02-19 22:11:22

글자크기

지난 17일 부산에서 숨진 지 2년 가까이 지나 백골로 변한 50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달 16일 숨진 지 6년 지난 50대 백골 시신이 발견됐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 혼자 생을 마감하고 그 시신이 수개월, 수년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가슴 아프고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10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고독사(孤獨死)'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수치와 정황으로 금방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더라도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09년 587명,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1인 가구도 지난 20년 동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25.3%에 이른다. 2020년에는 3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인구 고령화, 실직, 미혼, 질병, 빈곤, 사회관계망 해체 등 고독사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근 고독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유품정리업'이 신종 사업으로 뜨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중심의 표피적인 대책만 시행하고 있다.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든가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U-안심폰, U-케어시스템, 독거노인 공동생활터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부산에서 한 달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백골 시신 사건이 보여주듯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50대를 비롯한 청·장년층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무연사고립사 등 모든 '외로운 죽음'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고독사는 사회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경고하는 신호이다.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고독사 저변에는 빈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공동체 보위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웃과 단절된 사회, 고독사가 늘어나는 사회, 그것이 방치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고독사가 많은 쪽방촌





집단 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사회양극화 심화

뉴스홈 > 속보 > 사회

집단이기기에 童心 멎는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4-11-25 12:11 | 최종수정 2004-11-25 12:11

분당 부유층 "임대 아파트와 학군 분리" 민원

집값 올리기 노림수 의혹... 위화감 부채질 눈총

“시퍼렇게 멎은 동심.”

경기도 분당 백궁·정자지구의 일부 초등학교 재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함에 시달리고 있다. 학군 내 학교 간 빈부 격차가 심화해서다. 학부모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불러온 결과다. 백궁·정자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한 일부 학부모가 인근 임대아파트 학생들로부터 자기 자녀들을 분리시키고 나아가 집값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민원으로 학교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고



"일부 부자의 목소리가
공교육까지 흔들어 놓았다"

출처 - 김경준(1993), 고층아파트 층별 거주 어린이의 옥외 놀이 공간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뉴스홈 > 속보 > 경제

"강남에 임대APT 세우면 물 흐려져" - [데스크 칼럼] 개포동 주민들의 집단청원 파문

PRESSian | 기사입력 2003-06-02 18:33 | 최종수정 2003-06-02 18:33

타워팰리스 "감히 내 애를, 서민들 애와 함께..."

한 블록건너 부유층과 서민층의 공존

타워팰리스 "감히 내 애를, 서민들 애와 함께..."

'개포단지 취학배정 백지화' 파문, 2년전에는 개포주민 똑같은 반발

기사입력 2005-02-05 오전 10:29:00

출처 - PRESSian 뉴스-사회, 2005,02,05(박태건 기자)

집단 이기주의, 님비현상으로 사회양극화 심화

[뉴스카페]

옆 아파트 주민 다니지마...철문 만들고 신원확인까지

"같은 동네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할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인접한 힐스테이트 단지 내 보행로 통과를 제지당하자 막는 경비원에게 항의했다. 롯데아파트(339세대) 주민들은 바로 옆에 붙은 힐스테이트의 철문을 통과하려면 설명, 방문이유,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A씨는 "신원 확인을 받을 땐 마치 내가 현행범이 된 것 같아 차라리 우회해서 간다"고 말했다.

2008년 입주한 힐스테이트는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 지하철도와 **강남구** **철**,삼릉초교·연주중학교 등이 가까워 강남에서도 알짜 아파트에 속한다. 그런데 울어들어 바로 옆 롯데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이웃 주민들과 연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졌다.

작년만 해도 힐스테이트 단지 내 보행로는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과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철문이 설치된 뒤 **공식적**으로 **길이** 막혔다. 인근 주민들은 단지를 가로질러 갈 경우 학교, **관공서**,버스정류장 등을 10분이면 가지만 우회하면 30분이나 걸린다고 불편을 호소한다. 통행인원은 하루 평균 800여명.

힐스테이트 측은 그동안 외부인 출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문을 설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통행 제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1년간 아파트를 개방해보니 기물파손,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참다못해 취한 조치"라며 "단지 내 통행로는 엄연히 사유지인데 외부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남의 집 마당에 무단 침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도 단지 내 통행을 막은 한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측은 이 같은 **갈경**한 태도에 **관할구청**인 강남구도 난감해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힐스테이트가 설치한 철문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아 엄격히 말하자면 불법 구조물"이라며 "허가를 내주는 대신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힐스테이트 측이 거부해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잘 다니던 길이 갑자기 통제되다보니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법적으로는 힐스테이트가 옳다 해도 답장을 얻고 공원처럼 개방하는 최근 추세와는 역행하는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2010.09.03

<현장>아파트 주민 인심 갈수록 각박해져

연합뉴스 기사입력 1997-02-11 09:17

(釜山=聯合) 朴昌洙기자 = 아파트 주민들간에 길과 약수터 이용 등을 놓고 서로 싸우는 등 이웃 인심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8시께 釜山市 北구 金谷동 한솔아파트 정문 앞에서는 아파트내 통로로 지나다니는 학생들의 진입을 막는 경비원과 인근 영세민 아파트 주민들간에 고성과 함께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다.

일의 발단은 한솔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출근시간대와 맞은편 금곡 주공아파트 1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비슷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한솔아파트측주민들이 주공아파트 학생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소동이 일어나고 난뒤부터 금곡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2백50여명은 지난 2년동안 자름길로 다니던 한솔아파트 단지 도로를 등교길로 이용하지 못하고 3백여m 이상 돌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한솔아파트측 주민들은 금곡주공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자신들 아파트단지내 통로를 이용, 등.하교하면서 화단의 나뭇가지를 무르뜨리는가 하면 자동차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정문과 후문에 경비원을 배치, 학생들의 통행을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철문에 막힌 통학길

입력시각 : 2008-09-11 05:01

트위터 | 파두메이 | NDO



[앵커멘트]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학길을 막아 주민들 사이에

학생들은 이 때문에 아파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훈 기자?

[리포트]

아파트 단지와 붙어 있는 초

상당수가 큰 아파트를 빙 돌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 측으

로 난 출입문을 닫아 걸었

[기자]

이같은 사정은 바로 옆에 위

입니다.

이 단지의 경우 카드키가 없으면 아예 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

지난해 한 아파트가 학교쪽으로 난 문을 닫아걸자 다른 아파트도

이로 인해 상당수 학생들이 큰 아파트 단지를 빙 둘러서 등교해(

[인터뷰:박가은, 초등학생]

"너무 불편해요. 주민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방순일, 학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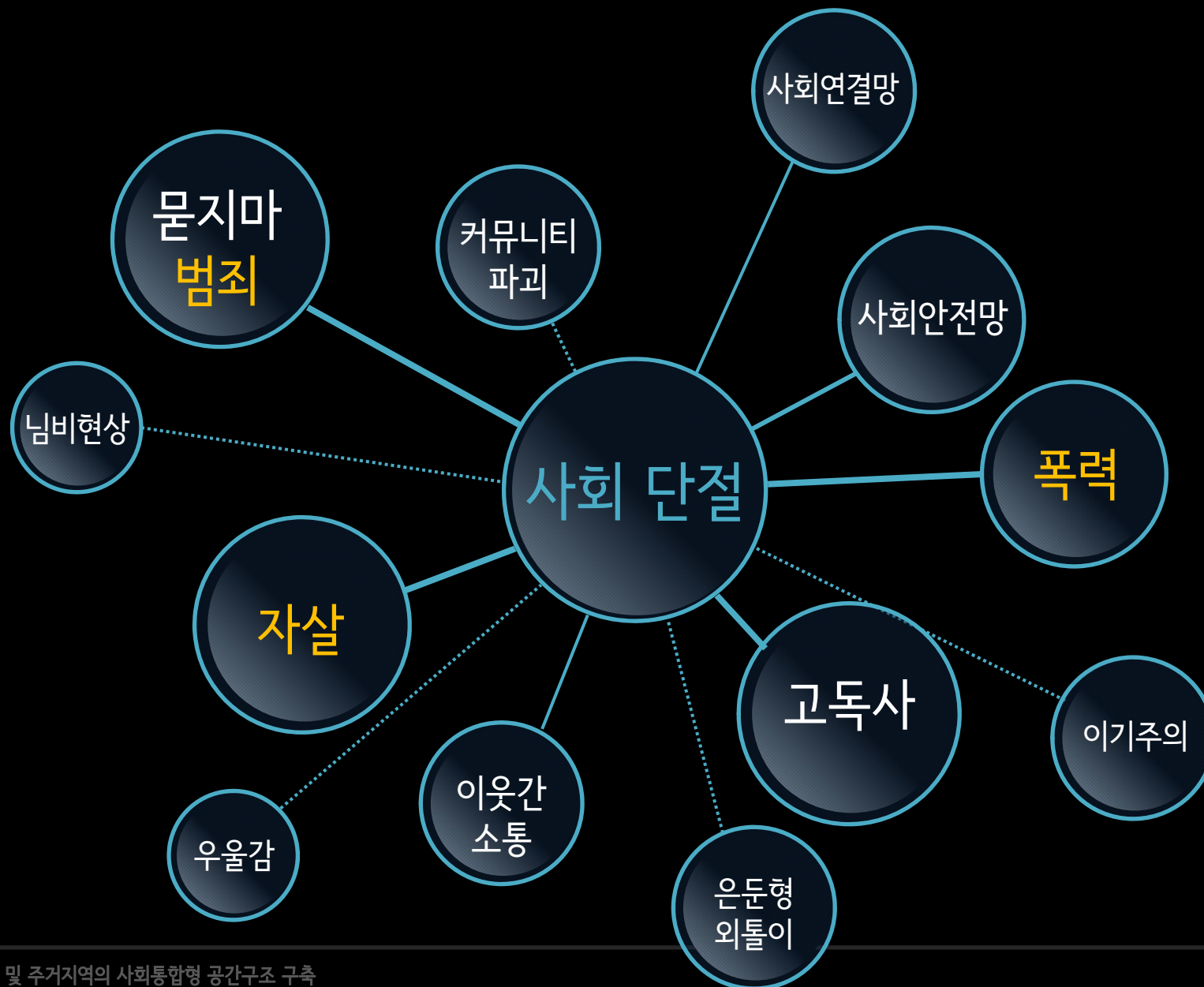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가 문을 막아놔고 그 옆에 있는 아

10분에서 15분 정도 빨리 오는데 돌아오니깐 10분에서 15분 늦는

시민 단체들은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이기주의 때문에 이같은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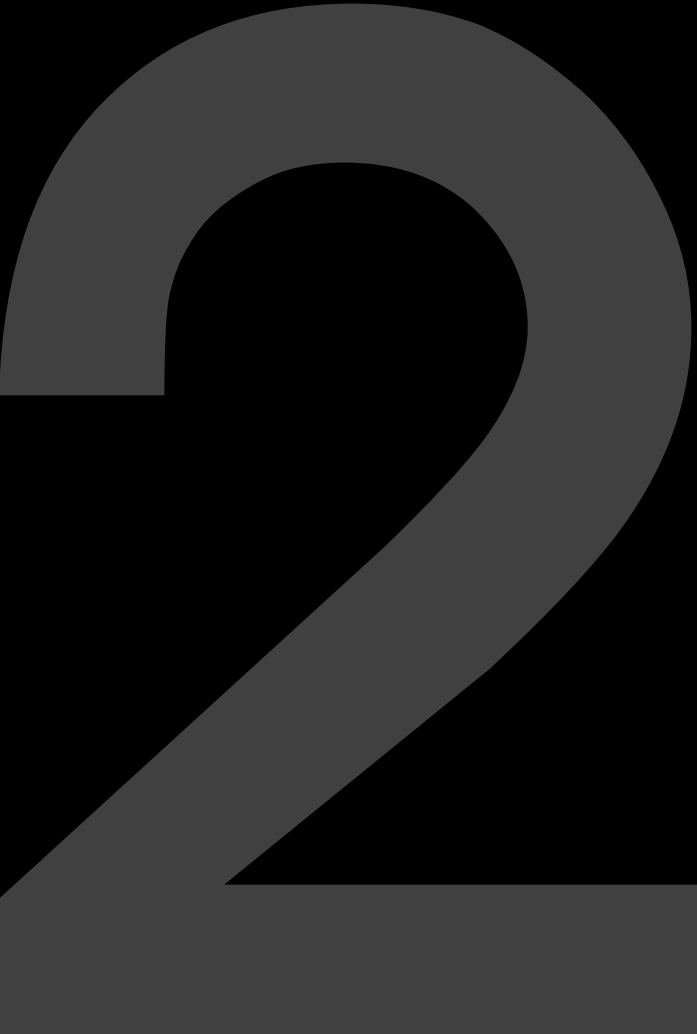
사회단절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자살, 범죄, 폭력 ...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A large, stylized, light gray number '2' is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partially overlapping the text area.

건축도시공간에서 바라본
사회갈등 심화

대한민국의 공간구조와 사회갈등구조

초고층 주거단지

■ 초고층 주거의 전성시대

문제는 이러한 초고층 주거의 개발이 특수한 조건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총량과 입지적인 측면에서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

	국가명	빈도(%)		국가명	빈도(%)
1	중국	985 (47.9)	14	이스라엘	16 (0.8)
2	미국	392 (19.1)	15	말레이시아	15 (0.7)
3	UAE	134 (6.5)	16	아르헨티나	14 (0.7)
4	한국	76 (3.7)	17	파나마	13 (0.6)
5	일본	75 (3.6)	18	인도	12 (0.6)
6	호주	59 (2.9)	19	영국	10 (0.5)
7	타이	42 (2.0)	20	베네수엘라	6 (0.3)
8	캐나다	37 (1.8)	21	네덜란드	5 (0.2)
9	싱가폴	34 (1.7)	22	스페인	5 (0.2)
10	브라질	26 (1.3)	23	카타르	5 (0.2)
11	필리핀	22 (1.1)	24	사우디아라비아	5 (0.2)
12	인도네시아	17 (0.8)	25	이집트	4 (0.2)
13	러시아	16 (0.8)	26	기타	27 (1.4)
합계			2056단지 (100%)		

	도시	빈도(%)		도시	빈도(%)
1	홍콩	920 (44.7)	11	호놀룰루	28 (1.4)
2	두바이	112 (5.4)	12	토론토	27 (1.3)
3	뉴욕	107 (5.2)	13	상하이	18 (0.9)
4	시카고	90 (4.4)	14	샤자	17 (0.8)
5	마이애미	61 (3.0)	15	자카르타	17 (0.8)
6	서울	44 (2.1)	16	멜버른	17 (0.8)
7	도쿄	40 (1.9)	17	모스크바	16 (0.8)
8	방콕	36 (1.8)	18	써니아일비치	16 (0.8)
9	싱가포르	34 (1.7)	19	라스베가스	15 (0.7)
10	부산	30 (1.5)	기타(122개 도시)		411 (20)
합계			1645단지 (100%)		

해외 주요 도시별 초고층 주거건축물 현황 - 서울 세계 6위, 부산 세계 10위

국가별 초고층 주거건축물 현황 - 한국 세계 4위

대한민국의 공간구조와 사회갈등구조

고층 주거단지 연구

분류	년도	연구자	주요결과	연구결과
거주 만족도와 선호도	1999	Landau, G	긍정적	초고층 거주 여성 85% 이상이 만족 표현, 그 중 반 이상이 이사에 관심이 있음
	1976	Gittus, E	부정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불만족을 표현함
	1975	Moore,N.C	부정적	단독거주자들보다 만족하고 있지 않음. 고립감, 외로움, 소음 등에 불평
	1979	Saegert, S	부정적	소외감으로 인한 불 만족감이 큼
압박, 과밀 그리고 정신적 건강	1976	Moore, N. C	부정적	고층거주민들이 단독거주자들보다 유의한 신경증적 증상을 보임
	1974	Goodman , M	부정적	초고층 거주자들의 정신 병리적 증상 비율이 층수와 함께 오름
	1979,1981	Hannay, D.R/ Littlewood, J & Tinker, A	부정적	초고층 거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남 고층 주거에서 이사를 한 후 증상이 감소됨
	1991	Husaini, B.A., Moore, S.T & Castor, R.S	부정적	저층, 초고층 거주자 비교연구에서 초고층 거주자들에게 우울증, 정신분열 및 공포장애가 더 높게 나타남
	1982	Edwards, J.N., Booth, A.,& Edwards, P.K	부정적	배우자 및 자녀들과 좀 더 많은 가정불화가 나타남 부부관계 마찰, 부자관계 나쁨 - 자녀폭행 빈도 증가
자살과의 관계	1989	Clarke, R.V & Lester, D	부정적	초고층과 자살과의 관계 연구에서 부정적인 입장
	1994	Lester, D	부정적	1960~1976년 사이 싱가포르 초고층 거주자 9%에서 51% 증가, 뛰어내리는 자살율 1.43에서 5.71로 증가(100,000명 당), 같은 기간 자살율 7.17에서 5.49로 하락 (cf. 시애틀:밴쿠버 총기자살, Sloan, 1990; Maruzuku et al, 맨하탄:브루클린)
행동문제	1974, 2002	Ineichen, B. & Hooper, D Taylor, Kuo & Sullivan	부정적	초고층 거주 아이들에게 2배 이상의 행동문제가 나타남(예 : 야뇨증, 분노발작증) 고층주거 남학생 행동장애>여학생 집중력 자제력
	2006	Gifford, R & Lacombe, C	부정적	아이들 사이에서는 물리적 거주환경이 행동문제에 큰 영향을 줌(다만, 녹지공간이 존재하면 문제를 줄여줄 수 있음)

대한민국의 공간구조와 사회갈등구조

고층 주거단지 연구

분류	년도	연구자	주요결과	연구결과
범죄와 범죄에 대한 공포감	1951	Slum surgery in St. Louis	부정적	프루트 이고에 사례 인용, Semi-private & 완충적인 공간의 부족은 범죄 발생을 야기함
	1972 1975	Yancey, W Newman	부정적	범죄 발생의 증가는 이웃과의 부정적인 커뮤니티에 의해 발생한다고 봄 층수 높아질수록 범죄 발생
	1979	Saegert, S	부정	소외감으로 인한 불 만족감이 큼
	1988	Normoyle, J.B & Foley, J.M	중립	초고층에서 더 적은 범죄율이 발생, 그러나 범죄에 대한 공포감 증가율을 아님, 노인은 고층주거를 안전하게 느낌
친사회적 행동	1982	Nadler, A., Bar-Tal, D & Drukman, O	부정적	고층 주거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저층 주거 학생들이 더 도움을 잘 줌
	1973,1976	Bickman, L./ Wilcox, B.L & Holahan, C.J	부정적	사회적 지지 및 참여가 층수가 올라갈수록 감소함 22-25/4-7/2-4층: 남을 도와주는 행위 빈도 감소
사회적 관계	1983	Korte, C & Huismans, S	부정적	초고층 거주자일수록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가 좋지 않음
	1985	Ginsberg, Y & Churchman, A	부정적	같은 층 주민 인식 연구에서 8층과 20층 비교, 8층은 97% 누가 사는지 만(67%는 모두 다 인식함), 20층은 36%만 누가 살고 있는지(30%만 모두 다 알고있음)
	1972	Sinnett, E.R., Sachson, A.D & Eddy, G	부정적	인터뷰 연구, 저층 거주민들이 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
	1977	Michelson		고층주거는 단지외부에서 교류가 주로 일어남
아이들과의 관계	1976,1977	Cooper mavcus, C & Hogue,, L./ Conway, J & Adams, B	부정적	초고층 주거는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1971,1976	Crawford & Virgin./ Gittus, E	부정적	초고층 거주 아이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음. 이에 따라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됨.

출처_Robert Gifford(2007),The Consequences of Living in High-Rise Buildings,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50(1)

대한민국의 공간구조와 사회갈등구조

초고층 주거단지

■ 초고층 주거의 공간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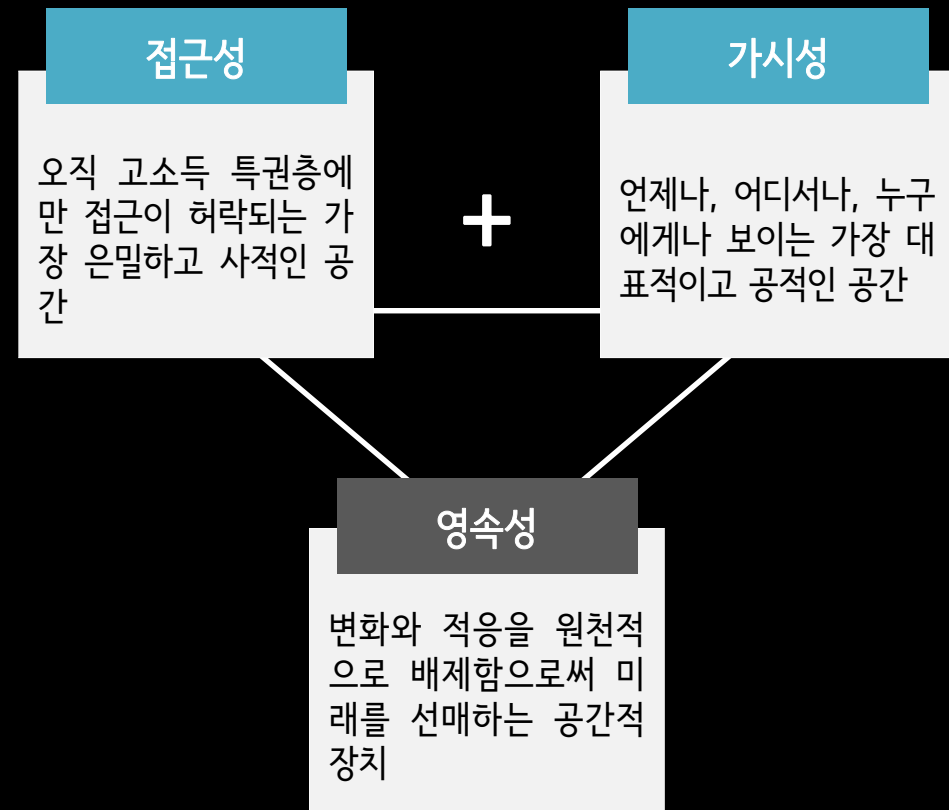
초고층 주거는 접근성의 측면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가시성의 측면에서 가장 공적인 공간이라는 역설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공간적 장치

■ Gated community의 형성

격리를 통한 사회의 통제가 아닌 자본 지배권력이 통제 불가능한 사회로부터의 방어 또는 보호를 위해 스스로를 격리하는 '공간적 역전(spatial inversion)'을 통해 현실화



표류하는 이미지들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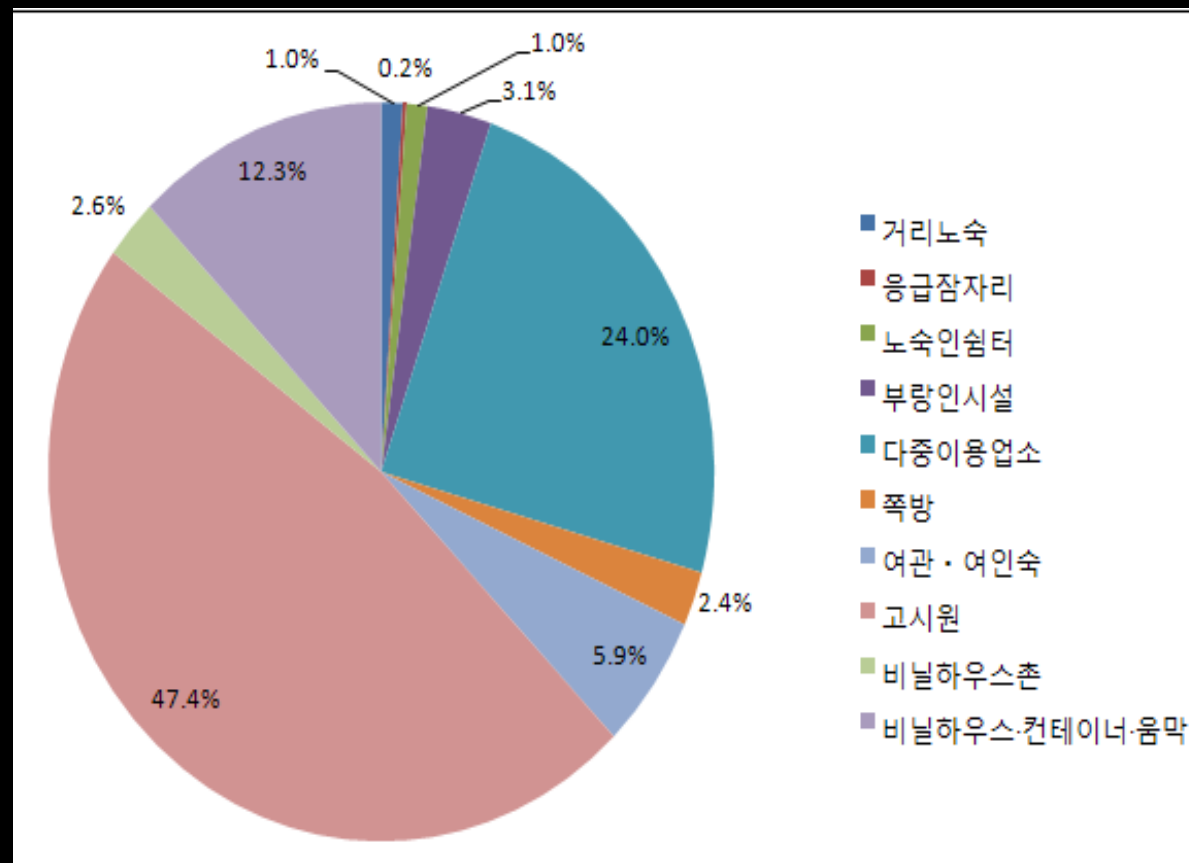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공간구조와 사회갈등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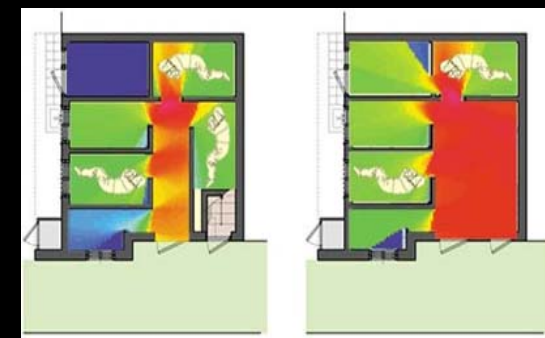
빈민계층 주거단지

■ 도시의 외로운 섬, 불량주거단지

도시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빈민계층이 머무는 주거단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차별화와 더불어 절망감, 외로움, 고립감 등으로 네트워크가 단절된 주변환경에서 오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함



거처 유형별 취약계층 구성비 (한국도시연구소, 2012)



돈의동 쪽방촌 내외부 공간구조 분석, Space Syntax Model

공간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

■ 공간적 정의 (Spatial + Jus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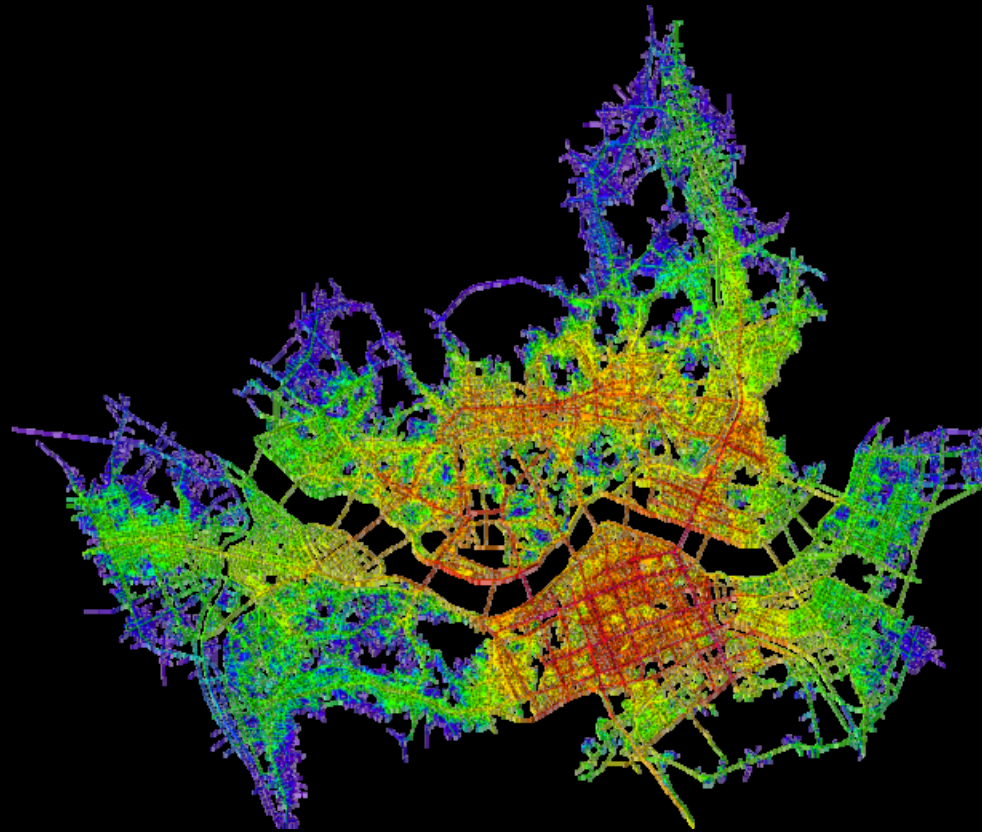
정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간화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 위한 개념적 장치. 나아가 부정의한 현실에 개입하는 사회적 실천들의 각 측면에 있어서 **적재적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정하기 위한 역사적 환기와 투쟁을 유도한다는 쓸모를 가짐

공간적 불균등 개발

Why?

공간적 실천

Spatial
Justice



서울의 공간구조적 불균등성, Space Syntax Model

공간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

■ 공간적 전환 (Spatial 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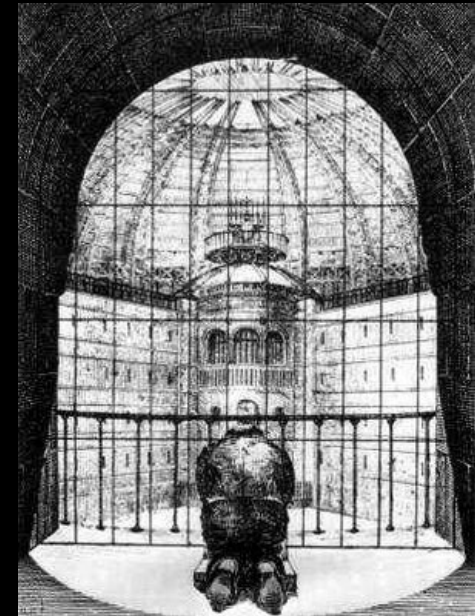
68년 이후 르페브르(Lefebvre)와 푸코(Foucault) 등에 의해 주도된 인식론적인 변화. '공간적 사고 (spatial thinking) - 공간적으로 생각하기'를 통해 당시 사회 이론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역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 대안 공간 만들기'의 가능성을 개척하고자 했던 일련의 흐름들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1974)

: 새로운 사회의 생산은 어떠한 공간의 생산을 필요로 하는가?

푸코, 감시와 처벌(1975)

: 사회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권력은 어떻게 개인의 신체를 공간적으로 구속하는가?



모든 종류의 사회적 부정의(injustice)의 생산은 부정의한 공간의 생산과 인과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전제

공간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

■ 공간이용행태 (Spatial Behavior)

공간의 형태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리학적 영향을 미치며, 공간이용 행태를 결정짓는다.

레비 스트로스(Levi-Strauss, 1967)

: 사회적, 정신적 과정들은 그것들의 객관적이고 구체화된 외적 투영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공간에서 발견

힐리어 & 한슨(Hillier and Hanson, 1984)

: 도시병리학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설계가의 결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건물의 새로운 형태는 공간의 사회적 조직에 미친 효과에서 비롯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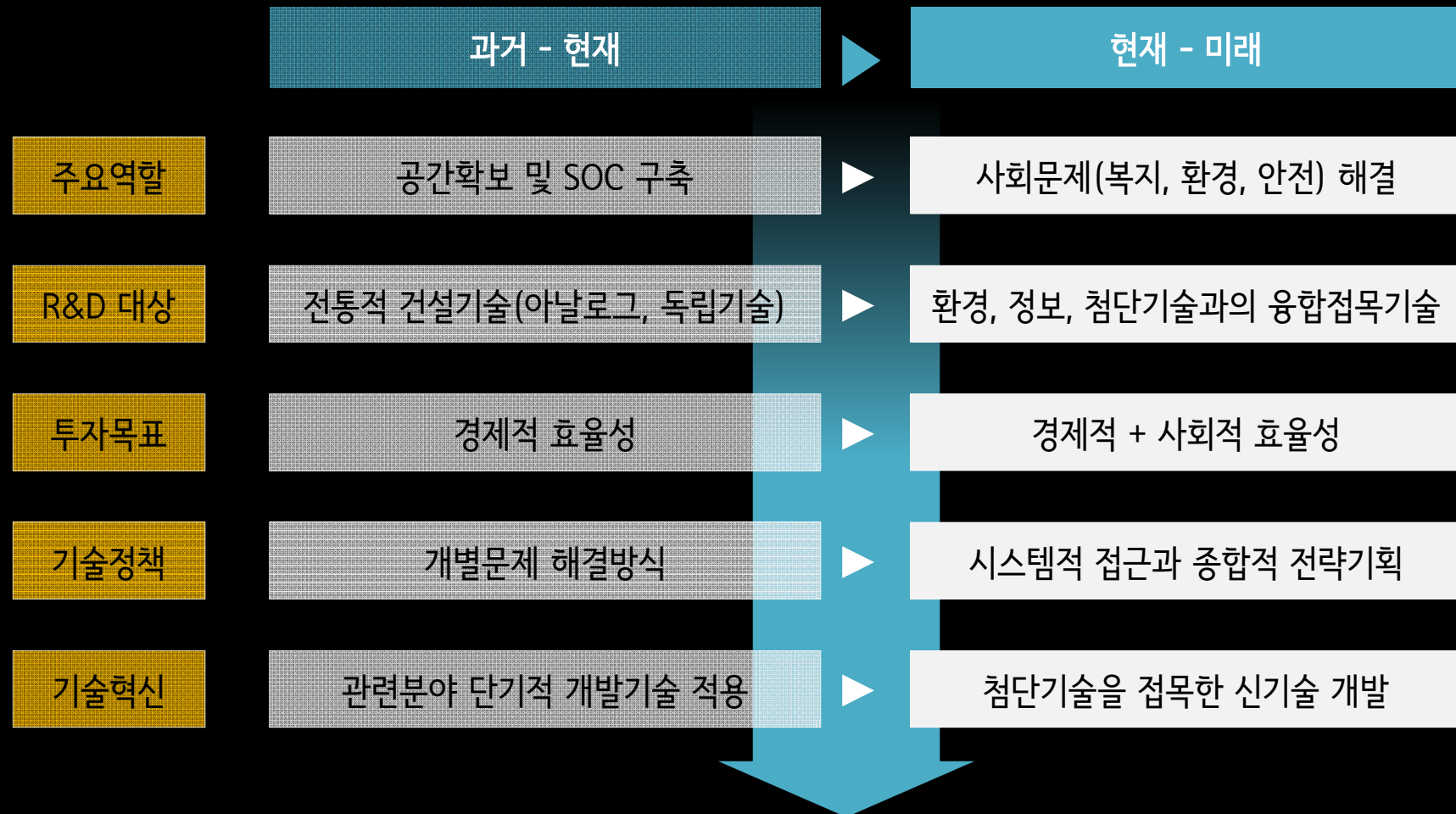
토머스 마커스(Thomas Marcus, 1993)

: 건물이 명백히 사회적인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관한 담론은 이것이 배제된 채 생산됨

3 사회네트워크를 회복하는 공간네트워크

사회갈등을 공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건축도시공간 구축의 패러다임 변화



인간, 환경, 정보 중심의 R&D 강화와 R&D의 선택과 집중, 융합화의 확산

강석진(2013) 참고 재정리

사회네트워크 회복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STEP 1

사회병리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영향요인 해석 모델개발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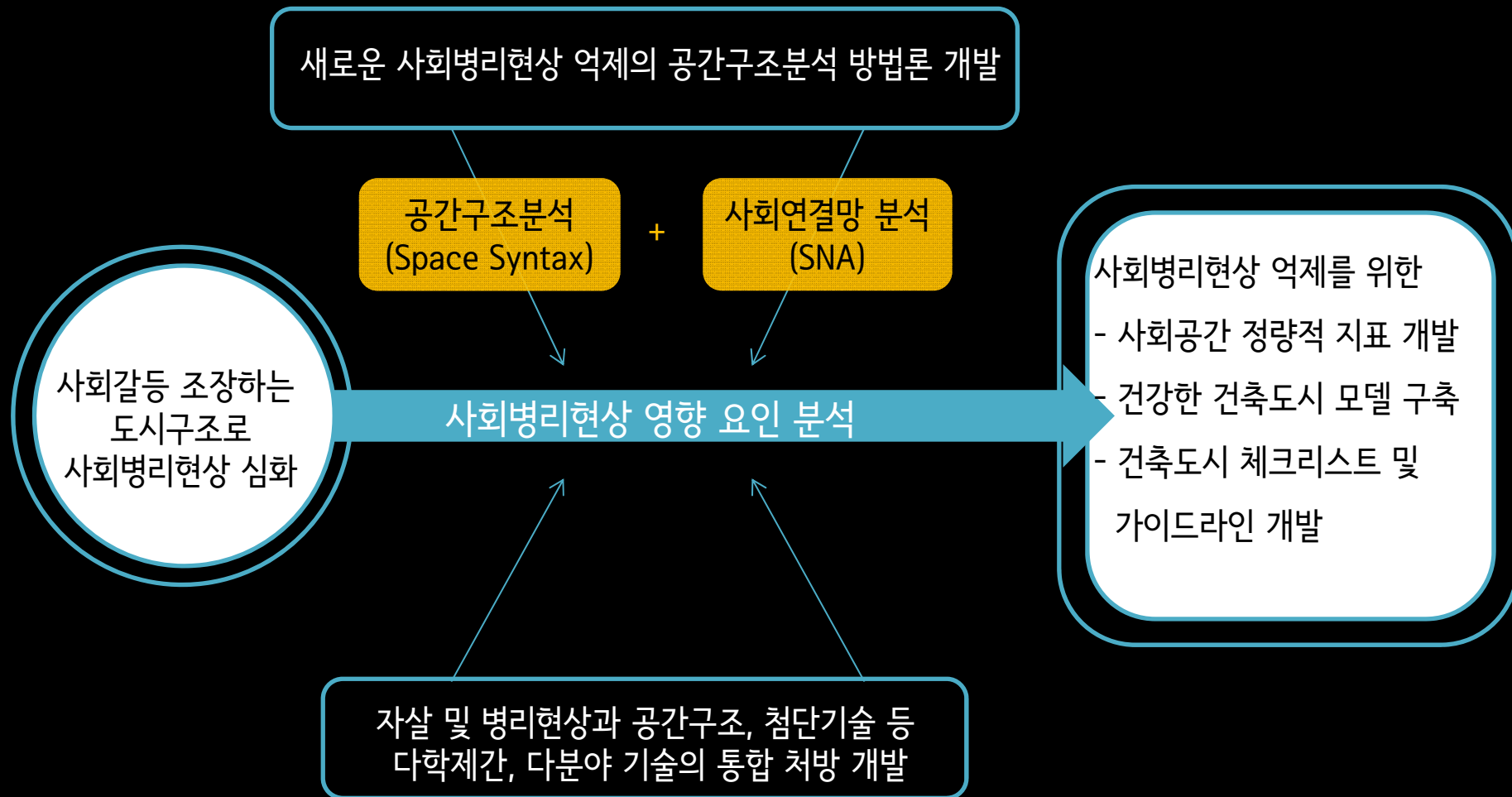
다양한 기술 및 정책 (예: U-첨단시스템, 공동생활체사업) 및 다학제(건축도시학,사회학,심리학,범죄학, 정보통신공학) 간의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안전망 및 공동체의 건강성 회복

STEP 3

사회병리현상 예방의 사회공간 통합 처방시스템 개발 및 정책개발

행복한 사회 회복을 위한 건강한 사회공간 통합시스템 개발

사회병리현상 억제를 위한 사회통합형 공간모델 구축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활용

사회병리현상
영향요인

+

사회, 문화, 심리, 주거, 건축, 도시 등
다학제적 접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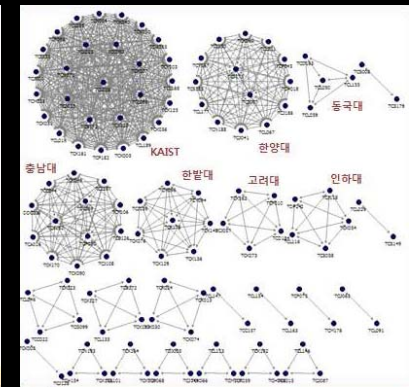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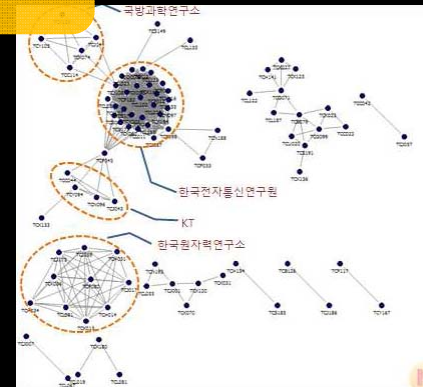
네트워크 취약주거환경
공간이용행태

공간구조분석
(Space Syntax)

+

사회연결망 분석
(SNA)

Social Network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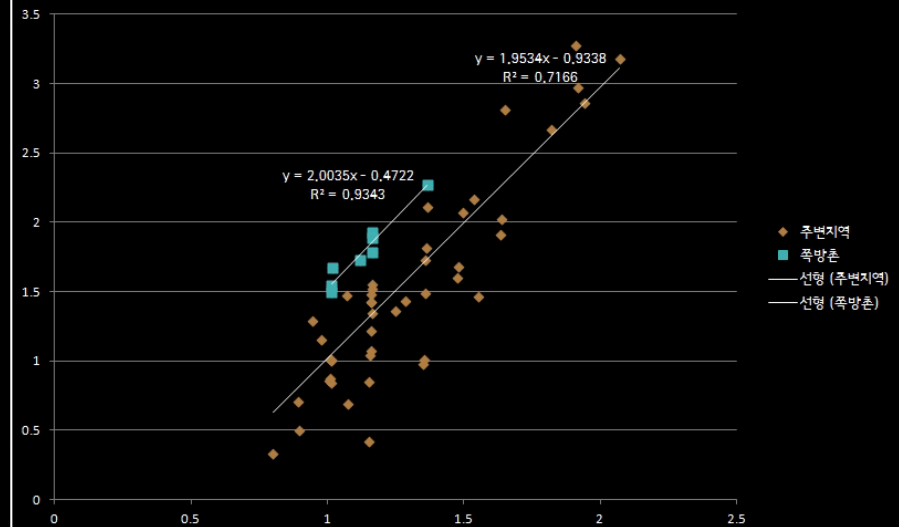
사회병리현상을 직시할 수 있는 다학제간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시스템 적용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활용

1. Space Syntax 공간구조 분석



돈의동 쪽방촌의 통합도 분석 결과



돈의동 쪽방촌의 명료도 분석 결과

■ 주변지역과 비교할때, 쪽방촌의 접근성은 낮음

- 쪽방촌 내부 Global Integration 값(1.13), 반경 1km 값(1.68)과 인접지역의 평균치(1.85)보다 19.5%, 24.5%만큼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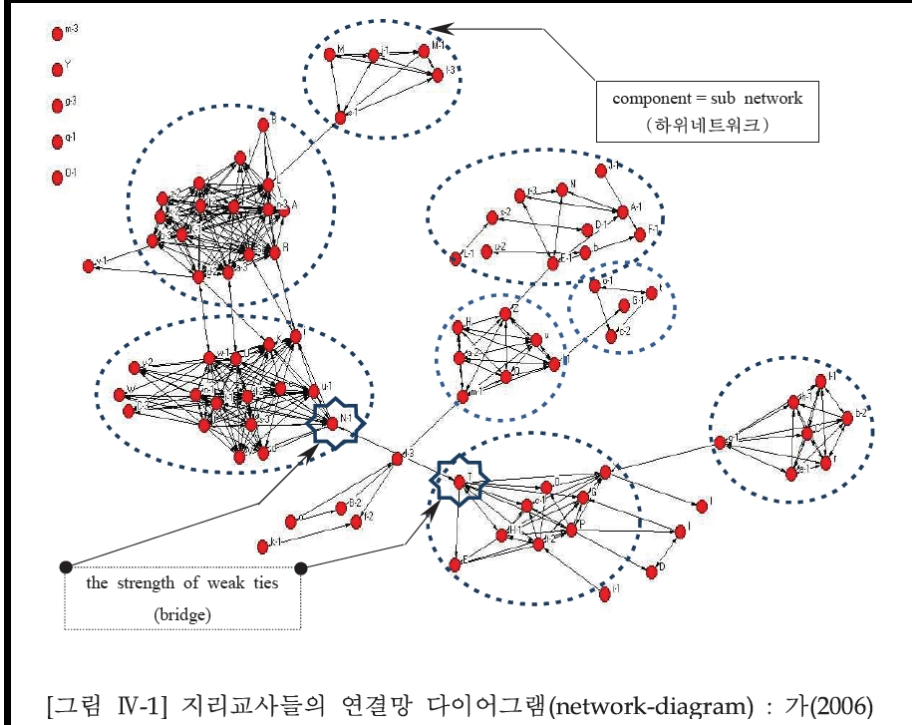
■ 쪽방촌 내부의 간결한 격자형 공간구조 때문에, 내부는 인지하기 쉬운 공간구조 형태임

- Local Integration 값의 내부 값(1.79)이 반경 1km 지역(1.68)보다 7.6% 상승하고, 인접 지역(1.85)보다는 3.3% 하락
- Intelligibility 값은 0.93으로 내부 공간구조는 매우 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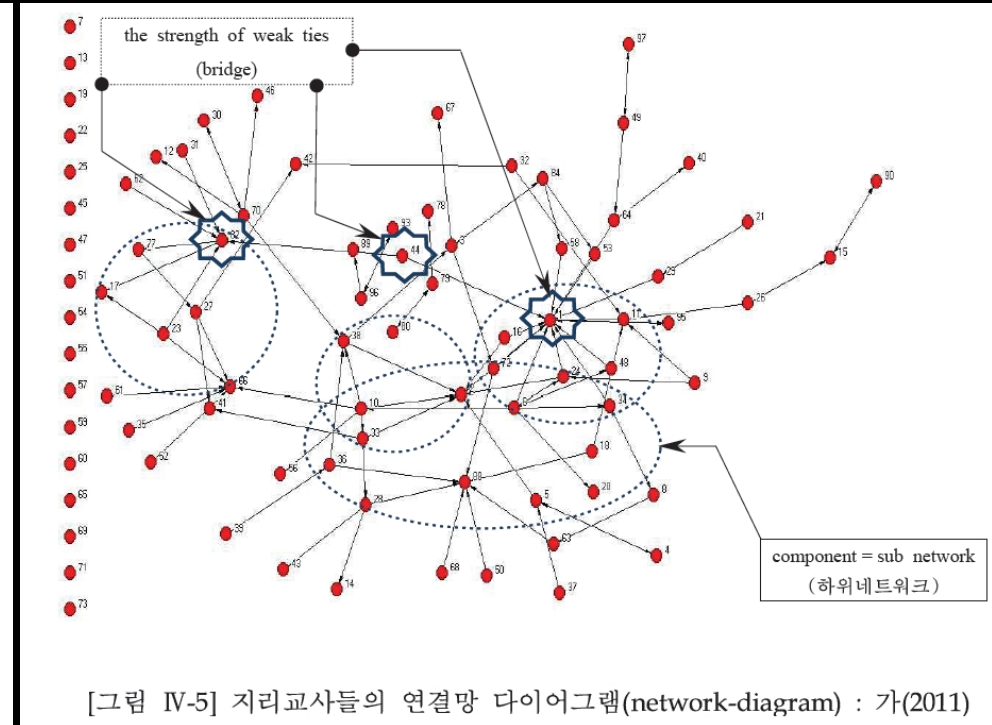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활용

2. 사회연결망 분석(SNA)

사회연결망 분석 예제도



[그림 IV-1] 지리교사들의 연결망 다이어그램(network-diagram) : 가(2006)



[그림 IV-5] 지리교사들의 연결망 다이어그램(network-diagram) : 가(2011)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중등사회과 교사간의 상호교류 실태 분석_최지희(2011)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친밀도가 높을수록 연결망 다이어그램이 그룹화현상 낮음 → 분산형, 링크 다양화
- 집중도, 중심성이 낮을수록 교류 활발

(왼쪽) 친근감을 가진 그룹이 정해져 있으며, 친밀도는 높지만 교류가 낮음

(오른쪽) 모임 내부의 인원의 교류가 활발하며, 친밀도가 높음

과학적인 분석시스템 활용

Ref	A	B	C	D	E	F	G	H	I	J	K	L
1	1200	3621.243	1727.984	3662.043	1510.054	2.070901	2.070901	3.181227		1.366326	2.272121	
2	36	3745.89	1614.093	3754.329	1524.637	1.942164	1.942164	2.858612		1.165947	1.931059	
3	38	3641.464	1575.845	3954.679	1600.867	1.916283	1.916283	2.973312		1.165252	1.883994	
4	3	3531.745	1792.028	4009.106	1795.815	1.911788	1.911788	3.276467		1.164419	1.782198	
5	1	3571.401	1814.147	3631.053	1702.588	1.822702	1.822702	2.66491		1.120522	1.730769	
6	5	3795.12	1871.974	3860.678	1590.683	1.650151	1.650151	2.809102		1.017247	1.670047	
7	33	3633.455	1630.462	3723.116	1639.649	1.640187	1.640187	2.018826		1.014924	1.5	
8	32	3620.799	1684.587	3724.399	1692.629	1.63525	1.63525	1.907627		1.014082	1.540548	
9	37	3744.689	1611.711	3769.402	1619.843	1.552436	1.552436	1.467678				
10	1196	3730.911	1769.463	3750.318	1801.267	1.536339	1.536339	2.166543				
11	15	3825.198	1726.172	3842.226	1722.407	1.494543	1.494543	2.066674				
12	87	3607.951	1728.654	3655.293	1743.279	1.479842	1.479842	1.678938				
13	86	3575.585	1743.736	3607.218	1763.091	1.476045	1.476045	1.600986				
14	6	3739.29	1725.889	3821.542	1769.803	1.366326	1.366326	2.272121				
15	16	3792.347	1710.66	3832.28	1727.828	1.365563	1.365563	2.111813				
16	39	3819.037	1637.438	3852.908	1640.888	1.36157	1.36157	1.819367				
17	44	3809.877	1675.933	3842.44	1685.883	1.360055	1.360055	1.725977				
18	27	3715.62	1638.449	3775.896	1654.713	1.359299	1.359299	1.489664				
19	34	3707.143	1657.871	3711.061	1637.39	1.353654	1.353654	1.010281				
20	31	3720.944	1718.784	3722.903	1688.664	1.351035	1.351035	0.979294				
21	1197	3731.721	1779.313	3735.988	1759.414	1.287361	1.287361	1.435087				
22	88	3632.284	1738.061	3713.327	1750.618	1.248091	1.248091	1.359221				
23	12	3731.05	1761.425	3761.64	1708.715	1.165947	1.165947	1.931059				
24	7	3780.565	1748.757	3801.908	1709.513	1.165252	1.165252	1.883994				
25	10	3761.721	1750.286	3783.219	1711.338	1.164419	1.164419	1.782198				
26	23	3761.436	1693.29	3767.464	1652.025	1.164419	1.164419	1.550553				
27	19	3790.538	1699.942	3795.962	1713.797	1.163865	1.163865	1.52269				
28	18	3794.305	1712.743	3800.332	1694.069	1.162067	1.162067	1.345503				
29	91	3733.089	1740.644	3741.912	1725.159	1.161791	1.161791	1.479184				
30	8	3781.855	1761.311	3788.528	1749.538	1.161515	1.161515	1.422193				
31	9	3784.698	1772.985	3797.065	1754.05	1.161515	1.161515	1.422193				
32	17	3811.033	1742.888	3819.773	1721.202	1.160688	1.160688	1.218612				
33	40	3835.179	1656.762	3840.124	1638.111	1.158625	1.158625	1.069887				

Space syntax의 데이터



3. 공간구조 & 사회연결망 분석

WARNING: This version of the program cannot handle asymmetric data. Matrix symmetrized by taking larger of Xij and Xji.					FREEMAN'S DEGREE CENTRALITY MEASURES				
EIGENVALUES					Diagonal valid?				
					Model: NO ASYMMETRIC C:\NET\Ucinet6\book\				
					Input dataset:				
1:	3.823	18.8	18.8	1.095	1	2	3	4	20
2:	3.492	17.2	36.0	1.109		OutDegree	InDegree	NrmOutDeg	NrmInDeg
3:	3.148	15.5	51.4	1.027	1	2	5	8	20
:					2	3	1	12	4
9:	0.407	2.0	99.7	6.562	3	3	1	12	4
10:	0.062	0.3	100.0		4	3	3	12	12
Bonachich Eigenvector Centralities					5	3	4	12	16
	1	2			6	2	1	8	4
	Eigenvec	nEigenvec			7	3	2	12	8
1	0.370	52.384			8	0	5	0	20
2	0.108	15.239			9	3	1	12	4
3	0.271	38.377			10	3	4	12	16
4	0.294	41.537			11	3	0	12	0
5	0.373	52.803			12	3	4	12	16
6	0.031	4.375			13	3	3	12	12
:					14	3	3	12	12
10	0.272	38.512			15	3	3	12	12
11	0.220	31.067			16	3	2	12	8
12	0.225	31.879			(종학)				
13	0.149	21.018			25	3	4	2	16
:					26	2	1	8	4
17	0.149	21.123			DESCRIPTIVE STATISTICS				
18	0.231	32.651				1	2	3	4
19	0.028	3.996				OutDegree	InDegree	NrmOutDeg	NrmInDeg
:					1 Mean	2.538	2.538	10.154	10.154
25	0.196	27.754			2 Std Dev	0.970	1.474	3.880	5.895
26	0.112	15.800			3 Sum	66.000	66.000	264.000	264.000
					Network Centralization (Outdegree) = 1.920%				
					Network Centralization (Indegree) = 10.240%				

Social network analysis의 데이터
(사회연결망 분석. 김용학 책에서 발췌)

Integration값 + 밀도, 중앙성 분석 = 통합형 사회 네트워크 값 산출

- 중심성 분석 : 네트워크 내 중요한 역할의 단체를 찾을 수 있는 지표임
- 중심이 되는 공간(Integration 값이 높은 공간)이 **사회적으로도 중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밀도 분석 : 구성원 간의 연결 및 교류 정도 분석 지표임
- 인지도 및 가독성이 높은 공간(Inteligibility 값이 높은 공간)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교류**가 더 활발함

사회적 병리현상 억제를 위한 사회·공간 통합시스템 구축

건축학, 도시학, 사회학, 범죄학, 정보통신공학
등 다학제적 접근

Ubiquitous 및 Social Networking 관련
첨단기술의 융복합 및 다이버전스(

다학제간의 연구를 기반으로 융복합적 기술 개발



U-city

U-안심폰

U-케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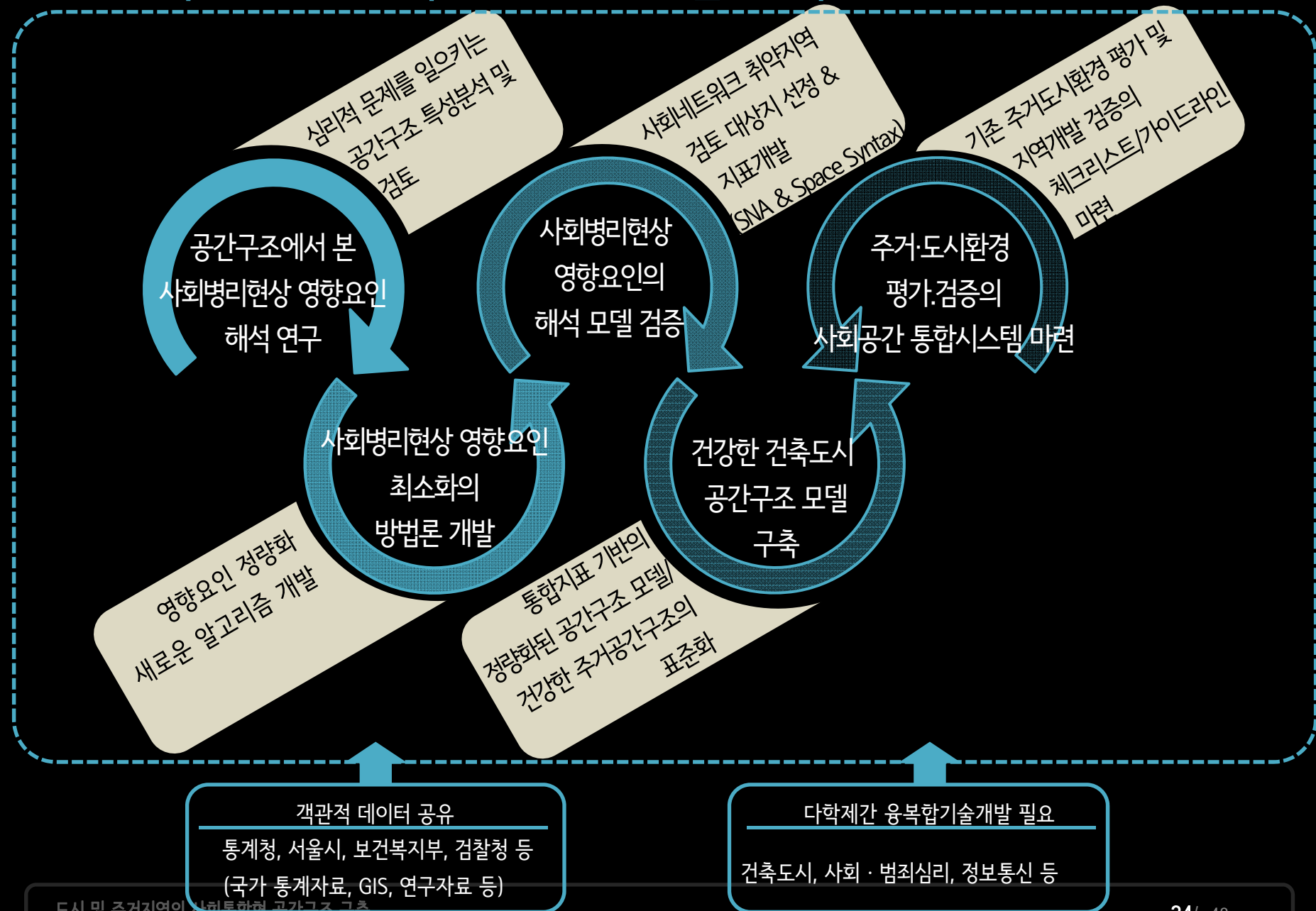
고독사제로

공동체사업

관련 기술 및 정책을 도시건축공간에 대한 공간구조 접근과 필요성

사회공간을 통합적으로 진단, 평가, 처방, 회복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시스템 전략



행복한 사회공동체

개인 너머에 대한 성찰은 비단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인 남녀 8백14명의 삶을 70여 년간 추적 조사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도 개인의 건강과 행복에 **인간관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성인 발달 연구에서 거대한 노후를 헤쳐나가는 **인공 가지 조건으로 꼽은 것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등이다. 50대에 이 중 세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이른 사례는 전혀 없었다.

특히 이 조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관론자들이 낙관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는 비관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거의 교류를 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의 총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47세 즈음까지 형성된 인간관계’는 방어기제를 제외한 어떤 변수들보다 훨씬 이후의 인생을 예견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65세까지 총만한 삶을 살았던 연구 대상자들 중 93퍼센트는 어린 시절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히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지를 결정짓는 것은 뛰어난 지적 능력이나 계급이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모가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나 친척, 친구, 동료, 이웃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성인 발달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운 점이 무엇인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오래 행복했을까?



인간의 뇌는 복잡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정교하게 발달해왔다. 사회성이란 곧 개인이 타인, 환경과 교감하는 능력일 것이다. 욕망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자본주의 사회, 생산성과 능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 수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당신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라는 주제로 독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부유한 사회보다 책임과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행복해지는 것’과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

근본으로 돌아가기: 도시공간 만들기 원칙



Jacobs, J. (1961)

"... she claimed, destroyed communities and created isolated, unnatural urban spaces."

'Toward an Urban Design Manifesto' (A Jacobs, Appleyard, 1987)

현대 도시 비판

: 사유화, 몰개성화, 공간주인의식(sense of spatial control)이 약화,
장소성 상실, 커뮤니티 와해

근본으로 돌아가기: 도시공간 만들기 원칙

Planner's Notebook

Toward an Urban Design Manifesto

Allan Jacobs and Donald Appleyard

A 1987 prologue

It is about six years since Donald Appleyard and I completed "Toward a New Urban Design Manifesto." In large measure it was student-generated, growing out of a first-time course that Donald and I gave, "Theories of Urban Form."

The course examined the physical forms of urban development associated with particular periods, or with design movements, or with ideas about urban form—ideas such as the livable city or the new towns movement, or the Charter of Athens. We tried to distill the essential urba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nd of each idea and attempted to assess them against values such as health and comfort, self-reliance, opportunity, and accessibility. Students, as always in the good classes, contributed to the research, the presentations, and the debates as much as Donald or I did.

We concluded, among many conclusions, that the new towns and garden city movements, on the one hand, and the cities inspired by the Charter of Athens and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odern Architecture, on the other hand, were perhaps the most powerful influences on the form of today's cities as we experience it. I think they are still, even though we have turned slightly back toward the importance of the street in city design. We, like others, were pleased with neither movement's principles. At a final class session, students suggested we write our own manifesto, a "Berkeley Design Manifesto," they called it. It was time for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better to help guide our work and perhaps the efforts of others as well—an assertion of what was right.

Donald and I took their challenge. How could we not? "Toward a New Urban Design Manifesto" was the result.

We had an opportunity to test our conclusions at a major address that was part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Conference in San Francisco in 1980. The response was better than we might have expected, just as it has been at the numerous other occasions when it has been presented in one form or another. It was not so warmly received, however, by the editors and reviewers of JAPA, who wondered where the research was to support our assertions.

Jacobs is a professor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a principal with Adelle and Associates, San Francisco. The late Donald Appleyard was a professor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12

one might find in a census. Most garden cities, safe and healthy and even gracious as they may be, are remote as more of suburbs than of cities. But they weren't trying to be cities. The emphasis has always been on "garden" as much as or more than on "city."

Both movements represent overly strong design reactions to the physical decay and social inequities of industrial cities. In responding so strongly, about understanding, to crowded, lightless, ashens, "utilitarian," congested buildings and cities that housed so many people, the utopians did not inquire what was good about those places, either socially or physically. Did not those physical environments reflect (and maybe even foster) values that were likely to be meaningful to peopl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such as publicness and community? Without knowing it, maybe these strong reactions to urban life ended up by throwing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In the meantime we have had a lot of experience with city building and rebuilding. New spokespeople with new urban visions have emerged. As more CIAM-style buildings were built people became more disenchanted. Many began to look through picturesque lenses back to the old preindustrial cities. From a concentration on the city as a kind of sculpture garden, the townscape movement, led by the *Architectural Review*, emphasized "urban experience." This phenomenological view of the city was espoused by Rasmussen, Keppe, and ultimately Kevin Lynch and Jane Jacobs. It identified a whole new vocabulary of urban form—one that depended on the sights, sounds, feels, and smells of the city, its materials and textures, floor surfaces, facades, style, signs, lights, seating, trees, sun, and shade of potential amenities for the attentive observer and user. This has permanently humanized the vocabulary of urban design, and we enthusiastically subscribe to most of its tenets, though some in the townscape movement ignored the social meaning and implications of what they were doing.

The 1960s saw the birth of community design and an active concern for the social groups affected, usually negatively, by urban design. Designers were the "soft cops," and many professionals left the design field for social or planning vocations. Finding the physical environment to have no redemptive social value. But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the mood in the design professions is conservative. There is a withdrawal from social engagement back to formalism. Supported by technology and other abstract themes, much of architecture has become a dilettantish and narcissistic pursuit, a chic component of the high art consumer culture, increasingly remote from most people's everyday lives, finding its ultimate manifestation in the art gallery and the art book. City planning is too immersed in the administration and survival of housing, environmental, and energy programs and in responding to budget cuts and community demands to have any clear sense of direction with regard to city form.

114

While all these professional ideologies have been working themselves out, massive economic, technological, and soci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 our cities. The scale of capitalism has continued to increase, as has the scale of bureaucracy, and the automobile has virtually destroyed cities as they once were.

In formulating a new manifesto, we react against other phenomena than did the leaders of CIAM 50 years ago. The automobile cities of California and the Southwest present utterly different problems from those of 19th-century European cities, as do the CIAM-influenced housing developments around European, Latin American, and Russian cities and the rash of squatter settlements around the fast-growing cities of the Third World. What are these problems?

Problems for modern urban design

Poor living environments. While housing conditions in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improved in terms of such fundamentals as light, air, and space, the surroundings of homes are still frequently dangerous, polluted, noisy, anonymous wastelands. Travel around such cities has become more and more fatiguing and stressful.

Giantism and loss of control. The urban environment is increasingly in the hands of the large-scale developers and public agencies. The elements of the city grow inexorably in size, massive transportation systems are segregated for single travel modes, and vast districts and complexes are created that make people feel irrelevant.

Giantism and loss of control. The urban environment is increasingly in the hands of the large-scale developers and public agencies. The elements of the city grow inexorably in size, massive transportation systems are segregated for single travel modes, and vast districts and complexes are created that make people feel irrelevant.

Large-scale privatization and the loss of public life. Cities, especially American cities, have become privatized, partly because of the consumer society's emphasis on the individual and the private sector, creating California's "private affluence and public squalor," but escalated greatly by the spread of the automobile. Crime in the streets is both a cause and a consequence of this trend, which has resulted in a new form of city: one of closed, defended islands with blank and windowless facades surrounded by wastelands of parking lots and fast-moving traffic. As public transit systems have declined, the number of places in American cities where people of different social groups actually meet each other has diminished. The public environment of many American cities has become an empty desert, leaving public life dependent for its survival solely on planned formal occasions, mostly in protected internal locations.

- Poor living environments
- Giantism and loss of control
- Large-scale privatization and the loss of public life
- Centrifugal fragmentation
- Destruction of valued places
- Placelessness
- Injustice

현대도시공간의 문제점이 단순히 주거형태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나 그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무분별한 주거 건설을 통하여 도시공간이 불평등하고 부정의가 증폭되고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 되는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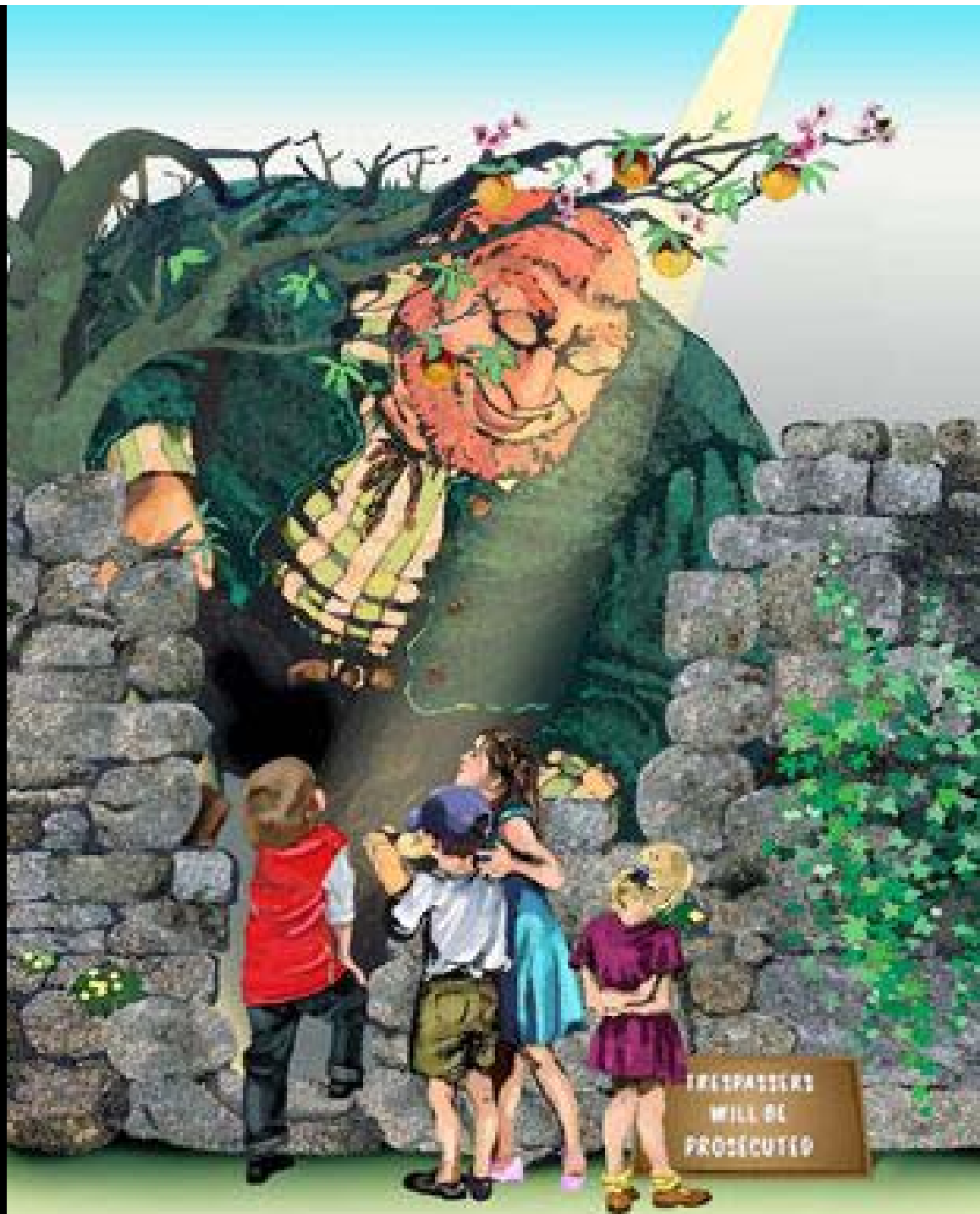
출처_Allan Jacobs and Donald Appleyard (1983), Toward an urban design manifesto,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53: 114-115

“그러나, 서로가 공감하는 도시만들기의 원칙이
현실적인 논리, 정치인의 구호, 시장경제 우선주의,
전문가들의 그릇된 신념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대세인 지금 가장 적합한 대안은
(학술적 논쟁보다는) 실천적 사고와 행동을 통한
- 공간적 정의 spatial justice -
회복이다.”



제인 제이콥스의 공간적 실천, 뉴욕



출처_ Oscar Wilde저, The Selfish Giant

“Injustice anywhere is
a threat to justice everywhere.”

- Martin Luther King, Letter from Birmingham Jail, April 16, 1963 -